

황당한 처방

‘약 좀 주문할게요. 근데 티아무린 주사제 있어요?’

며칠 전, 사무실로 걸려온 어느 조합원의 목소리였다. 물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맨주먹으로 그럴듯한 농장을 세우고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는 소위 ‘젊은 양돈인’ 중의 한 사람. 그는 자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출근형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조합에 약품이나 사료를 주문할라치면 어느 조합원과는 달리 사무실 직원이 미처 다 출근을 하기도 전인 매우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는 ‘아침형 인간’이랄까? 암튼 그런 바지런한 모습 때문에, 사람을 몇 번씩이나 만나도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얼굴치’인 나이지만, 그 조합원만큼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근데 왜 갑자기 쓰지 않던 티아무린 주사제를 주문하는 거지? 직업적인 호기심이 작동해서 나도 모르게 대뜸 질문이 나가 버렸다.

“농장에 회장염이 심각한가요?”

“?”

“그 주사약은 회장염이나 돈적리에 자주 쓰거든요.”

조합원이 조금은 당황하는 것 같아서 얼른 질문을 한 이유까지도 말해버렸다.

“...아뇨. 포유자돈이 1주일만 넘기면 설사를 하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어서 고민했는데 사료대리점 직원이 자돈이 태어나자마자 할 써보라고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_-;”

이즈음 되면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다. 황당하다는 표현이 적절한가? 그래서 사실 황당했다. 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많은 양돈사양가들을 만나면서 느껴온 생각인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양가들이 소위 ‘수의사’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주변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희한하다고 할 정도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했는데 이번의 경우도 그런 ‘희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입맛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豚子가라사대 : 포유자돈 설사



황윤재 팀장
강원양돈농협 수의팀

포유기간은 길어야 3~4주밖에 안되지만 이 기간 중에 자돈에게 발생하는 설사병의 종류는 꽤나 많다. 많은 사람들은 자돈이 설사를 하면 우선 그 원인에 집중하지만 그 외에도 사육관리나 환경 등 2차적 원인으로 인한 설사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치료법을 강구해야 한다.

하긴 사람이란 모든 상황에 대해 매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존재이고 또, 양돈장 주인에게서 사료 대리점 직원이나 약품대리점 직원의 의미는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농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쩐지 까다롭고 멀게 느껴지는 수의사들 보다는 옆에 있는 편한 상대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얘기하게 되는 건 어찌면 당연한 행위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의 하나는 양돈장 주변에는 항상 고도의 '이빨 내공'으로 무장된 소위 '꾼'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적절히 합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그저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체면 때문에 평소 안면이 있는 사양가에게 한마디 툭 던지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만 그 세치 혀에 마음이 동하고 만다.

물론 아무리 '이빨'이라도 사양가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는데도 굳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속 좁은 인간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후에는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간 그 친구가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말 약에 대해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과 아주 우연한 경험 한 번을 전부로 착각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 아니면 정말 대답이 궁한데 그냥 모른다고 하면 '쪽 팔릴까봐' 또는 향후 사료 판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터인데... 이런 경우 그냥 '회사 전문가에게 물어 봐 주세요'라든지 '제가 책임지고 용한 수의사를 데려다 봐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책임 있는 자세 아닌가? 그렇게 하면 사양가의 신뢰도 더 쌓이고 사료판매량 증가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말이다.

돼지가 말하는 진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그 농장의 설사 얘기를 마저 해야 하겠다. 돼지의 질병 중에는 유달리 특정 일령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발생 일령 특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자돈에게 설사증상을 유발하는 질병 중에는 이런 성질이 유달리 강한 설사병들이 있다. 위의 조합원이 내게 얘기한 1주령 이후의 설사를 주로 일으키는 설사병은 잘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콕시든행'이다. 이렇게 콕시든행이 독특한 일령특이성을 갖는 이유는 이 원충만의 생활사(라이프 싸이클)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아무튼 콕시든행은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다. 간혹 설파제로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티아무린 주사를 쓰라고 권한 사람은 도대체 그 설사증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권한 건지... 만일 그걸 대장균증으로 생각했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엔로플록삭신이나 겐타마이신, 린스마이신, 스피라마이신 등등을 권했을 터인데 말이다.

근데 잡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1주령 이후의 설사증을 예방한답시고 출생 직후의 자돈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지? 하긴 요즘도 갓 태어난 자돈에게 초유도 먹이기 전에 항생제부터 짜 먹이는 사람들도 가끔 보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조발성 대장균증 때문에 고생하는 농장에서는 어쩌다 볼 수 있는 광경이기는 하지만 설령 그 농장이 조발성 대장균증으로 고생한다 해도 나라면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아무튼 이 농장의 경우는 생후 3~5일령 사이에 항콕시들통제제를 사용하라 했다. 기왕에 설사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설파제 주사 처방도 해 주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설파제를 사용했다가 잘 듣지 않으면 처방 전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농장주는 또 여름철에 콕시들통증의 발생이 증가되는지 이유를 궁금해 했다. 당연하지! 여름철의 높은 습도와 온도는 콕시들통의 전파를 더욱 활성화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분무소독을 해주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걸... 대답에 더해서 무분별한 분무소독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이 친구처럼 바지런한 사양가들은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분무소독을 엄청 더 하는

경향이 있거든...

에필로그

포유기간은 길어야 3~4주밖에 안되지만 이 기간 중에 자돈에게 발생하는 설사병의 종류는 꽤나 많다. PED, TGE, 오제스키병과 같은 잘 알려진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대장균에 의한 설사증,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클로스트리디움증(괴사성 장염)과 오늘 얘기한 콕시들통증...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돈이 설사를 하면 우선 그 원인체를 생각하는데 집중하지만 그 외에도 사양관리나 환경 등에서 오는 2차적인 설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기간이나 분만 직전 직후 며칠간의 잘못된 사료 급이 관리가 포유모든의 젖 분비에 나쁜 영향을 두어서 그 결과로 자돈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만사의 잘못된 환기로 습도가 높아져서 설사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모든 자체의 질병, 무유증이나 MMA 때문에 2차적으로 자돈이 설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자돈 설사도 꽤나 복잡해지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들 단순하게 말을 던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면 그게 어찌 말이겠는가? 독약이 따로 없음이다. **양돈**

구제역의심 긴급전화
1588-4060, 1588-9060